공장 자동화부터 인재 발굴까지… SK AX, 현장형 AI 전환

창간기획 리부트 코리아
K산업의 화려한 부활

㊴ SK AX

AI 역량 평가 솔루션으로 인사 관리
美에 로봇 기반 물류 자동화 등 공급
2030년까지 전사 AI 체제 구축


김완종 SK AX 사장이 지난 6월 '이매진 AX 2026'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SK AX

SK AX가 현장형 인공지능 전환(AX)에 집중하고 있다. 제조 현장의 지능화와 기업의 AI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등 실행 중심의 AX 사업 모델을 내세우면서다.

◆체질 개선 1년 반…'AX 서비스 파트너'로 탈바꿈

SK AX는 지난해 6월 SK 주식회사 C&C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7년 만이다. IT 서비스를 구축하는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기업에서 기업의 AX를 지원하는 서비스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판(이름)부터 바꾸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SK그룹이 2024년 6월부터 추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복 사업 정리를 통해 계열사 수를 줄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이사회에서 SK AX의 사명 변경이 확정된 건 그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6월이다. 당시 사내 조직 개편을 단행해 ICT 사업과 AI 전환 조직을 통합한 'AI 트랜스포메이션(AT) 서비스 부문'을 신설했으며, 이후 AI 컨트롤 타워인 최고AI책임자(CAIO)가 대표이사 직속으로 출범했다.

동시에 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등 사업 구조도 재편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사업을 약 5000억원에 SK브로드밴드로 넘겼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기계·전력 설계(MEP)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 등 소프트웨어 영역을 맡고 있다. 자산 매각을 통해 AX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했다.

◆현장형 AX 속도…북미 제조 솔루션 시장 확대

SK AX는 북미 제조 공장을 겨냥한 사업도 확대 중이다. 기존에는 SK그룹 내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를 만드는 'SKC' 자회사에 스마트팩토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명 변경 이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부품 공장에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율주행로봇(AMR)과 무인지게차(AFR) 등 하드웨어부터 AI 기반 물류정보시스템(MCS) 등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해 공급망 관리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중이다.

또한 현지 공장의 안전과 운영기술(OT) 관리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로봇 도입과 함께 현지 노동법과 안전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OT 관리 전문 기업인 'AMDT'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현지 공장과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다.

◆AI 인재 채용 솔루션 개발…인사관리 시장 공략

기업의 AX 지원은 똘똘한 AI 인재 채용부터 시작된다. SK AX는 올해 AI 역량을 진단하고 선별할 수 있는 솔루션 '지핏 스튜디오'를 선보이며 인사관리(HR) 시장 공략을 알렸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입사 지원자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해낸다. 이후 심층 면접 단계에서도 AI가 위기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통합 HCM을 공급하는 독일의 SAP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SK AX가 지난 3월 출시한 AX 통합 브랜드 엑스젠틱와이어에 기업자원관리(ERP) 전략 수립부터 운영까지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선보였으며, 이를 SAP 공식 개방형 플랫폼 'AI 에이전트 허브'에 등록해 전 세계 SAP 고객사들에게 공급하게 됐다.

한편 SK AX는 2030년까지 전체 업무 과정을 AI 워크포스로 전환해 생산성을 50%로 향상한다는 포부다.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빅테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완종 SK AX 사장은 올해 6월 개최한 '이매진 AX 2026' 행사에서 "AI와 협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지지하는 조직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AI 증강을 통한 전사 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KT, 카이스트 구성원에 AI 메일보안 제공

이메일 통한 사이버 위협 탐지·차단
AI 위협 탐지 등 3단계 보안 체계

KT는 카이스트(KAIST) 전 구성원에게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대학 전체에 클라우드 기반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학생, 연구자, 교직원 등 카이스트 전체 구성원이다. AI 기반 위협 탐지와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 체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이메일 공격을 탐지·차단하고, 대학의 주요 연구·교육 자산을 보호한다.

KT가 제공하는 AI 메일보안은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위협을 AI 기술로 탐지·차단하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다. 스팸 차단, AI 기반 위협 탐지, APT 정밀분석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적용해 정상 메일로 위장한 피싱 웹사이트주소(URL)와 악성파일 등 지능형 위협에 대응한다. 올해 6월에는 AI 메일보안 솔루션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획득했다.



카이스트 교직원들이 교내에서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다. /KT

특히 기존 구축형 APT 보안 솔루션과 달리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스팸·AI·APT 보안 기능을 통합 제공한다. 별도의 대규모 보안 인프라 구축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이용 규모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고도화된 이메일 보안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KT는 이를 계기로 AI 메일보안 사업을 국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연구·교육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보안 인력과 인프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기관에서도 AI 기반 위협 탐지와 APT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NHN클라우드, 상명대와 바이오헬스 협력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엔에이치엔(NHN)클라우드가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바이오헬스 분야 클라우드 활용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클라우드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분야의 클라우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연구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연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환경을 갖추도록 기술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찾는다. 사업단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기술검증(PoC)을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전공 학생에게 필요한 클라우드 역량을 검토하고, NHN클라우드 자격증(CES)과 연계한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두 기관이 작년


(왼쪽부터) 김동준 NHN클라우드 공공사업부 전무, 김동근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이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N클라우드

부터 진행해 온 'COSS&NHN클라우드' 교육 프로그램도 이어간다. 클라우드·AI 관련 교과목 자문과 전문가 특강,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교육 협력에 더해 연구와 플랫폼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 양측은 졸업생·재학생과 산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기회도 찾을 예정이다. /김보민 기자 kbm@

LGU+, 동반성장지수 8년 연속 '최우수'

중소 협력사와 상생 프로그램 운영

LG유플러스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고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금융, 기술개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정거래협약을 기준으로 130~150여개 중소 협력사와 공식 협약을 맺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은 월 4회,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등을 앞둔 시점에는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안정화를 돕고 있다.

재정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300억원 규모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론', '상생결제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사에는 직접 개발한 장비와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NW장비 테스트베드'와 'IoT 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도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ESG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2013년부터 주요 협력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동반성장보드'를 통해 양방향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정기적으로 동반성장간담회를 열어 협력사의 의견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 제도와 거래 관행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KT텔레캅, 독거노인 등 AI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KT그룹의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전국 약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AI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수주한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차 사업'의 결과물이다. 해당 사업은 KT텔레캅 수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5년간 총 769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앞서 9월까지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자연어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출입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AI 케어콜'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KT텔레캅 돌봄케어 관제센터와 119가 연결돼 24시간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친다.

또한, 전용 돌봄앱과 활동감지앱을 도입해 현장 응급관리요원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조민선 기자